

에세이 통해 '뚜렷한 개성' 드러내라



팬데믹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정책을 버렸다.

대신 많은 대학들은 시험점수 제출을 원하는 학생만 점수를 내도록 하는 옵션 정책 채택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립대 시스템인 UC의 경우 아예 표준시험 점수를 받지 않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도입했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테스트 옵션 정책이 확대된 상황에서 에세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그러므로 에세이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인다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면서 경쟁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세이 작성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자신이 쓴 에세이를 읽어보고, 다듬으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늦어도 11학년 직후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에세이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고유의 개성을 에세이를 통해 부각시킨다면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에세이의 소재를 브레인스토밍 할 때, 즉 어떤 토픽으로 글을 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무엇이 다른지 깊이 생각해 본다. 입학 사정관들도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이

고 평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학생, 독특한 개성을 갖춘 학생을 찾는다.

학사정관들도 사람이다. 에세이를 읽을 때 지원자 100명 중 10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평범한 스토리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남들이 다들 법한 뻔한 내용의 에세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역사를 좋아한다고 에세이에 쓰고 싶다면 역사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좋아하는가? 내가 심취한 역사적 사건이나 시기가 있는가? 나는 왜 그 사건이나 시기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나는 다른 학생들과 뭐가 다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를 에세이를 통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고민해보자.

세 번째는 '팔방미인' (well-rounded) 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 입시에서 뛰어난 성적과 양질의 추천서는 출발선이나 다름 없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잘하는 것도 물론 큰 강점이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밋밋한 색깔보다는, 한쪽으로 기울어서 개인의 개성이나 색깔이 잘 드러나는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더 유리하다.

어떤 학생들은 특정 과외 활동에 열정을 갖고 스테이트 또는 내셔널 수준의 성과를 낸다. 큰 상을 받고,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 또 어떤 학생들은 교사들과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능력을 인정 받아, 추천서에서 교사가 '나의 27년 교사 인생 동안 경험한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학생' 이라고 칭찬한다.

이런 강력한 성과나 좋은 추천서가 있다면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일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예비 12학년이 여름 방학에 해야 할 일

이제 곧 대학원서를 써야 하는 현 11학년이자 예비 12학년들에게 있어서 여름방학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대입지원서에 적어 넣을 GPA는 일반적으로 11학년 2학기까지만으로 마무리되지만 11학년을 마친 여름방학에 커뮤니티 칼리지나 온라인, 학교 서머스쿨 등에서 듣는 과목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만일 11학년 2학기까지의 GPA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GPA를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좋은 GPA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입지원서에 적어 넣을 수 있는 무게 있는 클럽활동,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혹은 인턴십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시 대입지원서에 적을 수 있는 어워드나 자격 프로그램 등을 끝내는 것도 매우 좋다. 물론 경쟁력 있는 캠프나 인턴십 지원서는 이미 마감이 되었지만 혹시라도 아주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아야 한다. 대학은 뭐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관심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고 경험해보는 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2개월이 넘는 여름방학을 그냥 여유롭게 보낸 학생들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 11학년들은 12학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입시전쟁에 돌입해야 한다. 조기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서를 접수할 11월 1일까지 약 6개월여의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에 입시 후보로서의 자기의 등급을 한 단계, 가능하다면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은 '탐나는 신입생 후보' 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 자신의 장점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에세이를 작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글쓰기 실력을 높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혹은 자신의 지망 전공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입증할 만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름방학 중에 짬을 내어 1지방, 2지방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3지방 대학까지는 되도록 직접 방문해 보면 좋다. 캠퍼스를 방문하기 전에 입학처(admission office)에 전화를 걸어 단체 투어 일정을 확인하거나 개인적으로 면담 및 견학 일정을 잡는 것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1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는 지원할 대학 목록을 6-8개로 압축해 두는 것이 좋다.

어느 대학이든지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에 있는 후보생의 경우 잘 쓴 에세이가 합격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아주 낮은 평가의 에세이가 불합격생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쯤 미리 UC나 공통지원서 (Common Application)의 에세이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들여다보아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축 가베 전문 학원

기다리던 가베 전문 학원! 창의가베·수학가베에 도전하세요.

Froebel Gifts 1837 : 3D Math & 수학가베



"Children can learn from objects to pictures, pictures to symbols, symbols to ideas-leading the ladder of knowledge".

Froebel Gifts

창의가베 2yr~4yr

"재미있는 창의가베 같이해요"



"더 높고 깊고 넓은 매쓰"

지금부터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매쓰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썸머스페셜 프로그램
★ 병아리 부화 클래스 ★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름 알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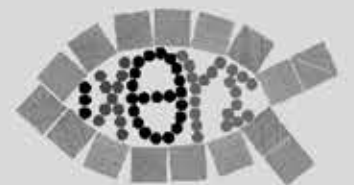
가베클럽
실용매쓰, 3D Math

3D ACTS

Froebel Gifts

창의가베 2yr - 4yr

수학가베 K - 6th



562.512.0111

7453 La Palma Ave Buena Park CA 90620



La Palma Ave

Western

Knoll's Berry Farm